

3. 파생상품시장

〈글로벌동향〉

- 2017년 4/4분기 글로벌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주식파생상품의 변동성 증가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
-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금액은 금리파생상품의 거래량 감소로 전분기대비 8% 감소

〈국내동향〉

- 2017년 4/4분기 코스닥150 선물의 거래대금은 지수상승으로 인한 ETF자금 유입 등으로 전분기대비 큰 폭(339%) 증가
- 2017년 4/4분기 국내 ELS의 발행액은 연말 기관들의 고액발행으로 전분기대비 51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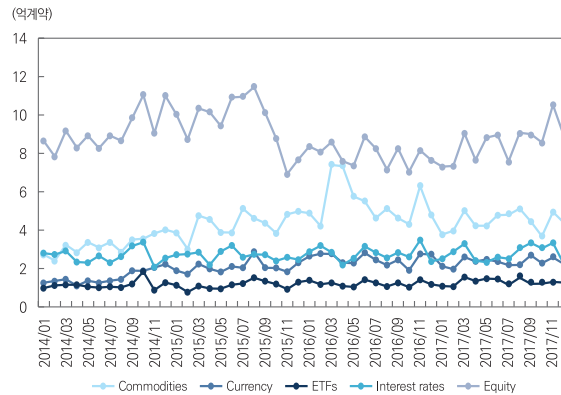
가. 글로벌동향

1) 장내 파생상품시장

가) 글로벌 거래소 전체

- 2017년 4/4분기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은 미국 세제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 주파생상품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분기대비 1% 증가한 60억5천만계약이 거래
 - 금리파생상품과 일반상품파생상품의 거래량은 각각 전분기대비 각각 3%, 10% 감소한 8.9억계약, 14억4천만계약을 기록
 - 반면 4/4분기 주식파생상품의 거래량은 11월 중순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전분기대비 9% 증가

글로벌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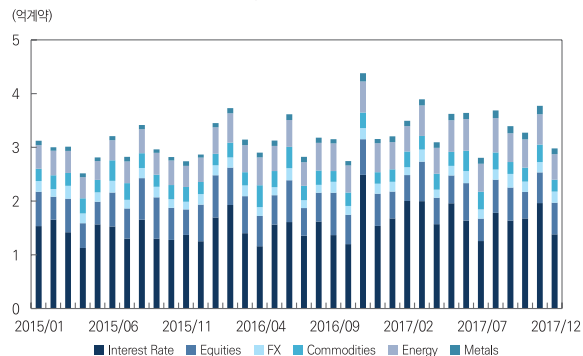
자료: WFE

나) 주요 거래소별

□ CME 그룹의 4/4분기 거래량은 10억만계약이며, 금리 및 금속파생상품의 거래 증가로 전분기대비 약 1% 증가

- Fed Fund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4/4분기 이자율파생상품의 거래량은 전분기대비 7% 증가한 5억2백만계약이 거래되었으며, 금속파생상품의 거래량은 전분기대비 4% 증가
-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나, 생산량 증가 및 파이프라인 증설로 안정화되면서 에너지파생상품의 경우 전분기대비 8% 감소한 1억6천만계약 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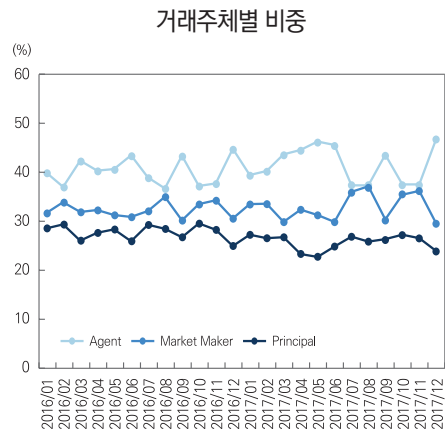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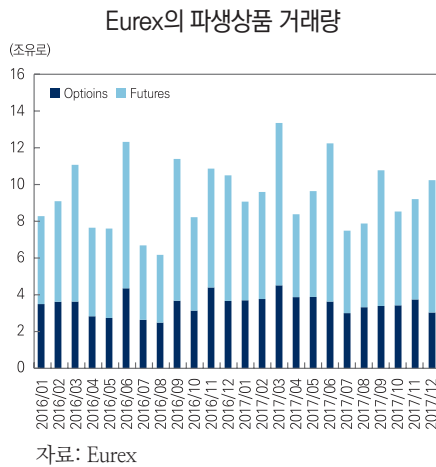
CME Group의 파생상품 거래량



자료: CME

□ Eurex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2017년 4/4분기 기준 28조유로이며, 독일 총선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고 극우당의 예상외 선전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, 전분기대비 7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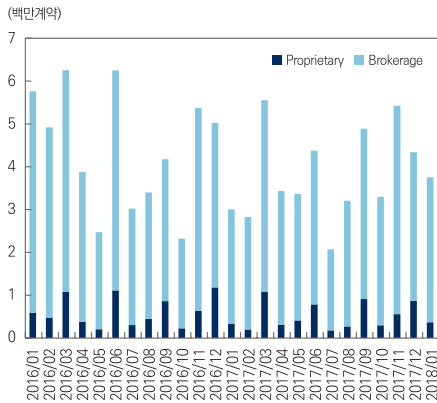
- 예상보다 낮은 지지로 독일의 연정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유로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의 거래량이 전분기대비 약 7% 증가
- 거래주체별 비중을 보면 금융기관의 브로커리지 거래는 전분기대비 5.2%p 증가하였으며, 자기매매거래의 비중은 3.9%p 감소



□ 일본거래소(JPX)의 경우 미국 세계개편안의 지연, 도시바의 상장폐지 위기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Nikkei225 선물의 거래량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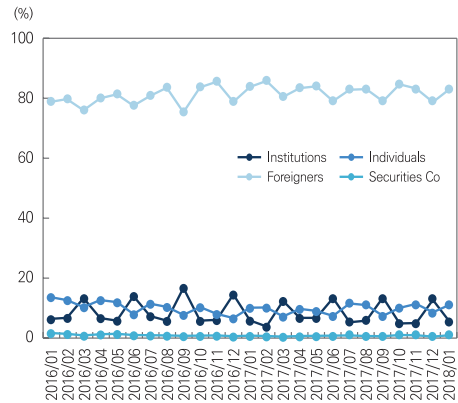
- 니케이225지수는 11월초까지 20년만의 최고점을 달성하였으나 그 이후로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Nikkei225 선물의 2017년 4/4분기 거래량은 1,300만계약으로 전분기대비 28% 증가
- 브로커리지 거래량의 상세 투자자 비중을 보면 2017년 4/4분기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은 78%로 가장 높으며,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2%p 증가

Nikkei225 선물의 거래량



자료: JP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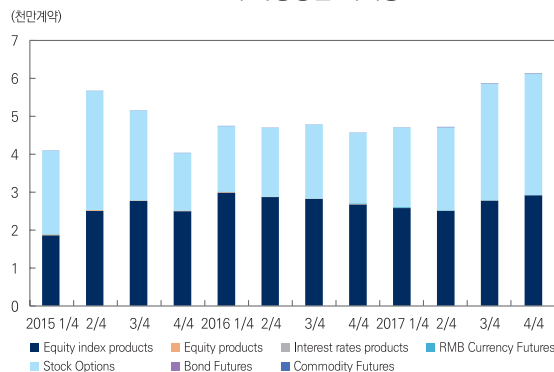
브로커리지거래량의 투자자 비중



□ 홍콩거래소(HKEX)는 11월 미국달러로 결제되는 철광석선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철강 선물의 약진으로 2017년 4/4분기의 총 거래량은 전분기대비 5% 증가

- 주가지수파생상품은 2017년 4/4분기 거래량이 2,922만계약으로 전분기대비 5% 증가 하였으나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18만계약으로 전분기대비 16% 감소
- 홍콩거래소는 투자자유치를 위해 철강선물에 대해 6개월동안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는데, 일반파생상품선물의 2017년 4/4분기 거래량은 14만계약으로 전분기 대비 202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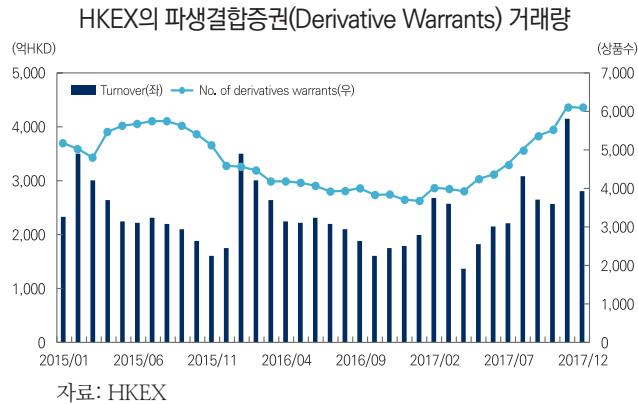
HKEX의 파생상품 거래량



자료: HKEX

□ HKEX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은 2007년 이후 항생지수가 최고점을 달성하는 등 주식시장 호황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신규상품수가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증가

— 2017년 4/4분기 기준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수는 6,094개, 거래량은 전분기대비 20% 증가한 9,529억홍콩달러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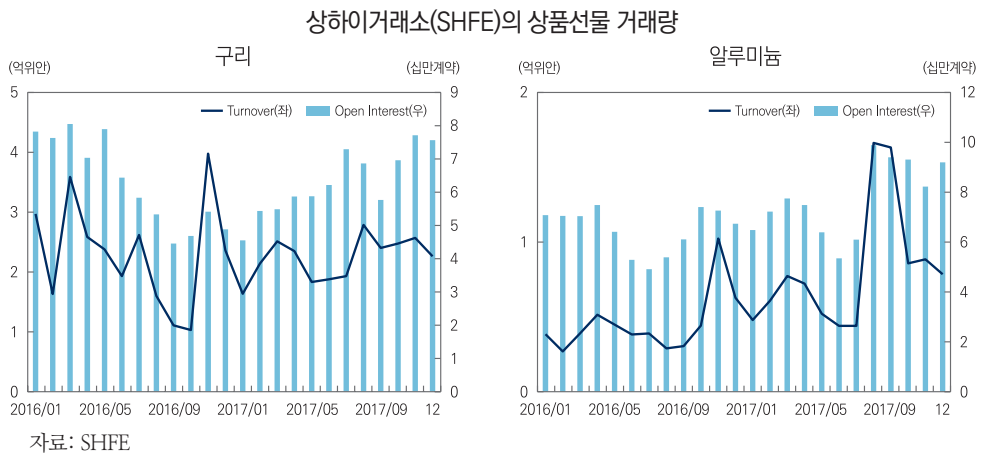
□ CSI300 지수의 상승세로 인한 변동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11월말부터 대졸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등 금융시장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에 연말 거래량이 증가

— CSI300 지수가 2017년 11월 28개월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SI300 선물의 거래량은 2017년 4/4분기 106만계약으로 전분기대비 1% 증가



□ 상하이선물거래소(SHFE)의 비철금속 거래량은 구리의 경우 중국 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거래가 증가하였으나, 알루미늄의 경우 재고 상황에 따른 거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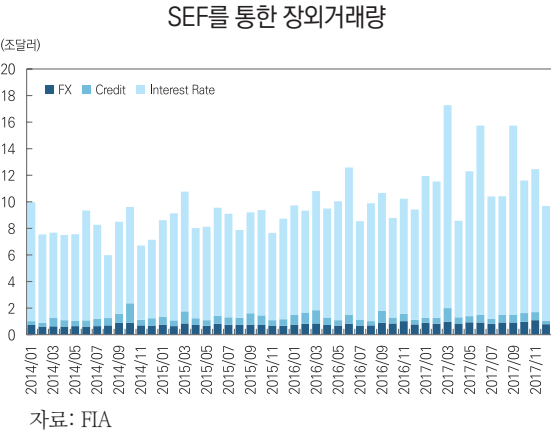
- 구리 선물의 경우 중국이 수입쿼터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 예상되면서 2017년 4/4분기에 7.3억위안이 거래되어, 전분기대비 3% 증가
- 알루미늄 선물의 경우 중국의 감산 노력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재고 증가로 2017년 4/4분기에 2.54억위안이 거래되어, 전분기대비 32% 감소



2) 장외 파생상품시장

□ 2017년 4/4분기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리파생상품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8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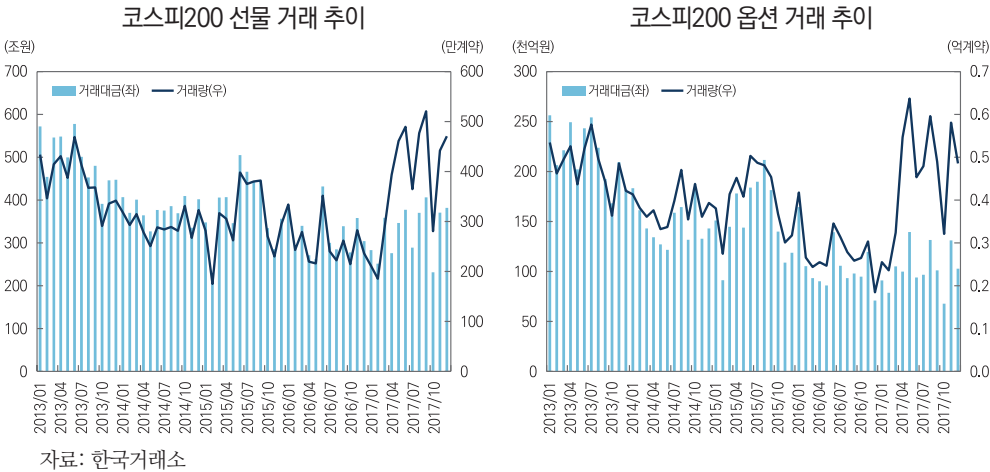
- 스왑체결기구(SEF)를 통해 체결되는 금리파생상품 거래량은 2017년 4/4분기 39.4조 달러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9% 감소
- 외환파생상품의 경우 2017년 4/4분기 2.9억달러 규모의 파생거래가 SEF를 통해 체결되면서 전분기대비 7% 증가
-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2017년 4/4분기중 1.5조달러의 규모가 거래되어, 전분기대비 2% 증가



나. 국내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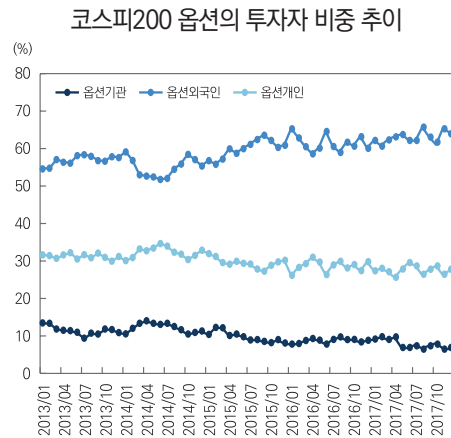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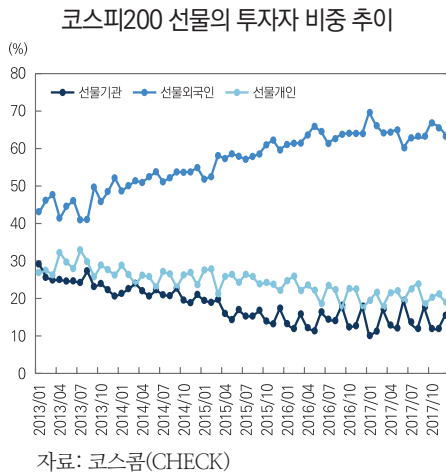
1) 코스피200 선물·옵션 거래 추이

- 코스피200 선물·옵션의 거래는 연말 기관들의 배당투자자로 인한 거래증가에도 불구하고 10월 추석연휴로 인하여 거래량 감소
- 10월의 경우 9일까지 휴장인 상태에서 12월에 코스피200 선물·옵션의 만기가 도래하여 10월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일평균 거래량은 감소를 보이지 않음
 - 2017년 4/4분기 코스피200 선물·옵션의 거래대금은 982조원, 30조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8% 감소



□ 코스피200 선물·옵션 거래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기관의 비중은 전분기 대비 모두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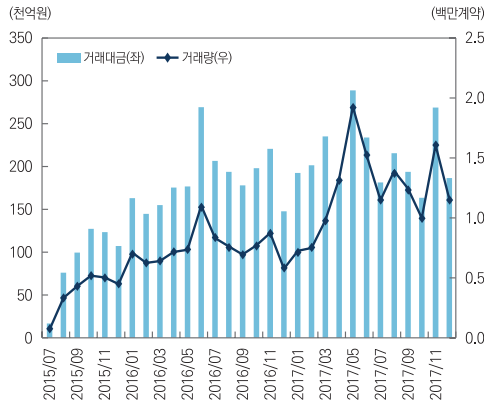
- 2017년 4/4분기 코스피200 선물·옵션 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모두 63.9%로 전분기 대비 각각 1.1%p 증가
- 코스피200 선물·옵션시장에서 기관의 비중은 모두 감소(-2.4%p, -0.9%p)하였으나, 개인의 비중은 선물시장에서 증가(0.9%p), 옵션시장에서는 감소(0.3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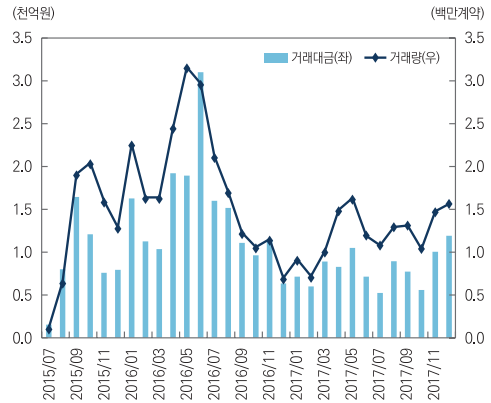
□ 미니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량은 옵션시장 활성화를 위한 KRX의 조치로 전분기대비 거래량이 증가

- 코스피200 옵션의 행사가가 11월 20일부터 모든 결제월물에 대해 ATM 상하 30pt에서 40pt로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증가
- 2017년 4/4분기 미니 코스피200 선물·옵션의 거래대금은 62조원, 0.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5% 및 26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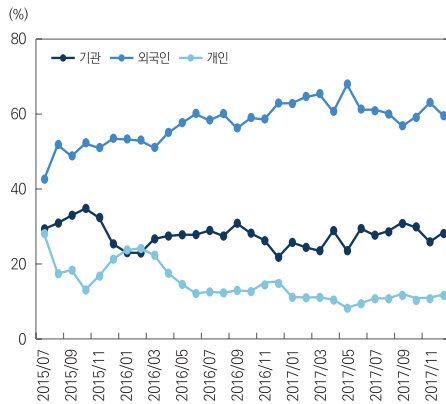
미니 코스피200 선물 거래 추이



미니 코스피200 옵션 거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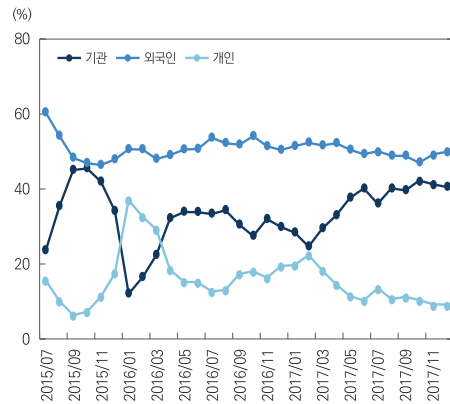


미니 코스피200 선물 투자자 비중



자료: 코스콤(CHECK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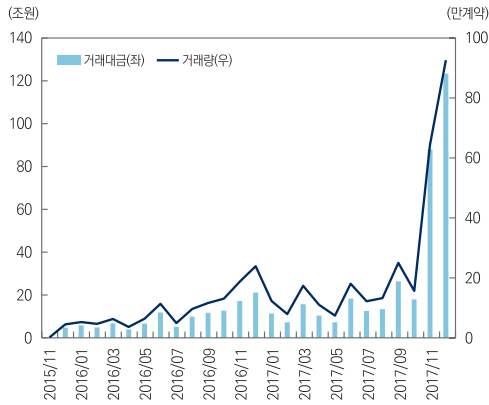
미니 코스피200 옵션 투자자 비중



□ 코스닥150 선물 거래량은 지수 급등으로 인한 관련 ETF의 설정잔고 증가와 12월중 바이오 대형주가 지수에 편입되면서 거래량이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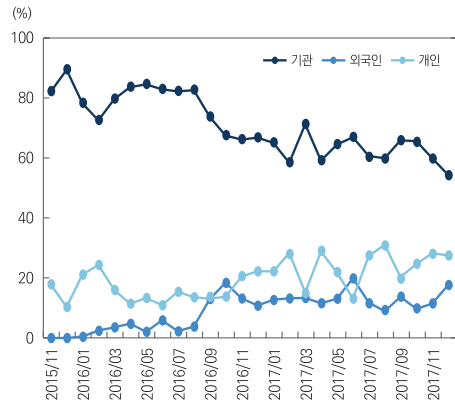
- 2017년 4/4분기 코스닥150 선물의 거래대금은 22.9조원으로 전분기대비 339.5% 증가 (전년동기대비 548.9% 증가)
- 2017년 4/4분기 코스닥150 선물의 투자자 비중은 기관, 외국인, 개인이 각각 54%, 18%, 27%이며, 기관의 비중이 전분기대비 11% 감소

코스닥150 선물 거래 추이



자료: 코스콤(CHECK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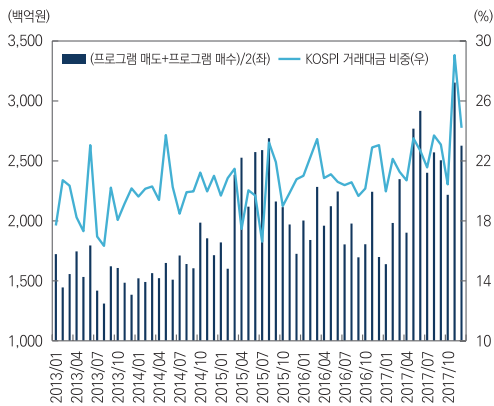
코스닥150 선물 투자자 비중



□ 코스피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, 주식형펀드 및 ETF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유입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거래대금과 비차익거래 비중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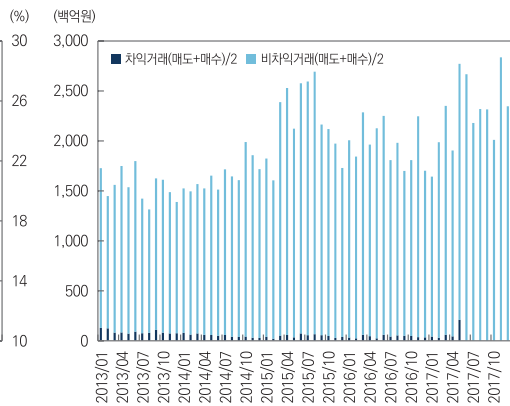
- 2017년 4/4분기 프로그램거래대금은 80조원으로 전분기대비 7% 증가하였으며,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프로그램거래대금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1.1%p 증가
- ETF시장이 성장하면서 비차익거래대금은 2017년 4/4분기 71.8조원으로 전분기대비 6% 증가하였음

프로그램 거래 및 KOSPI 대비 비중 추이



자료: 한국거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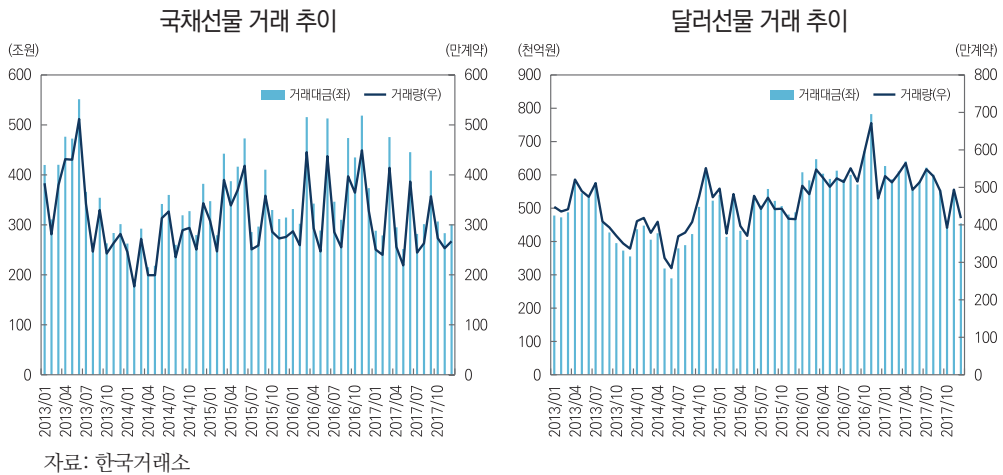
프로그램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추이



2) 국채선물, 달러선물, 개별주식선물 시장

□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관망세로 국채선물의 거래는 감소하였으며, 달러의 대체적인 약세로 인하여 달러선물의 거래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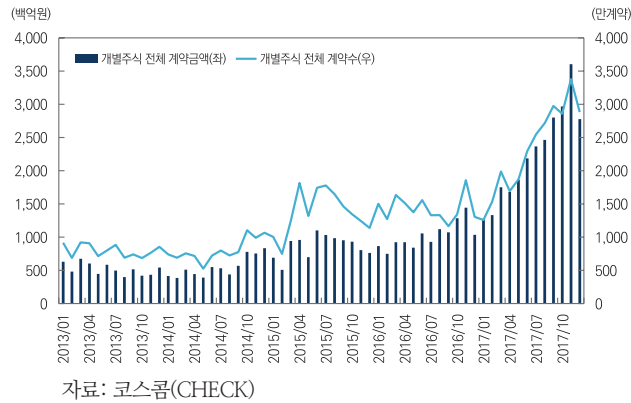
- 2017년 4/4분기 국채(3년, 10년)선물의 거래대금은 약 892조원으로 전분기대비 10%, 전년동기대비 33% 감소
- 2017년 4/4분기 달러선물의 거래대금은 144조원으로 전분기대비 19%감소, 전년동기 대비 28% 감소



□ 개별주식선물 거래량은 업종/섹터형 ETF시장의 성장과, 코스닥150 정기변경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증가

- 연기금의 규모는 아직 눈에 띄지 않으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목적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4/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23% 증가
- 2017년 4/4분기 개별주식선물 거래대금은 93.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9% 증가

개별주식선물 거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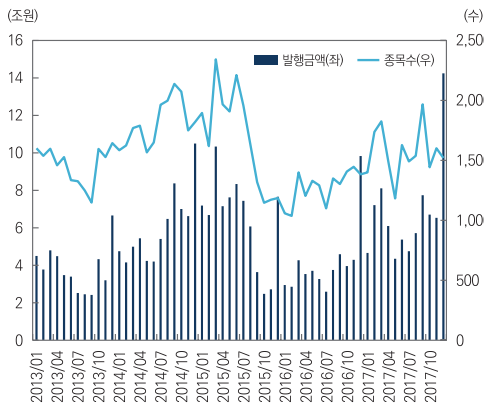


3) ELS·DLS·ELW 시장

□ ELS 발행금액은 12월 퇴직연금 관련 대규모 ELB 발행으로 전분기대비 급증하였으나, 전당 규모가 천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발행종목수는 오히려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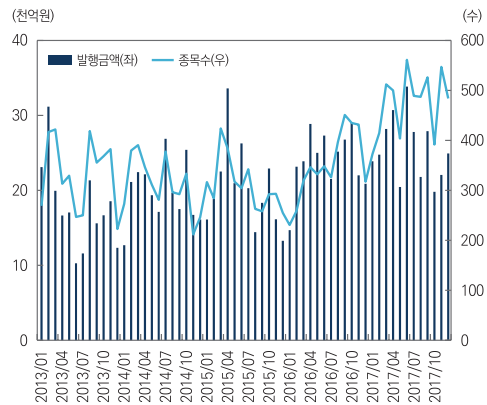
- 2017년 4/4분기 ELS 발행금액은 27.3조원으로 전분기대비 51% 증가하였으며, 전년동기대비 52% 증가
- 2017년 4/4분기 DLS 발행금액은 6.6조원으로 전분기대비 14% 감소, 전년동기대비 7% 감소

ELS 발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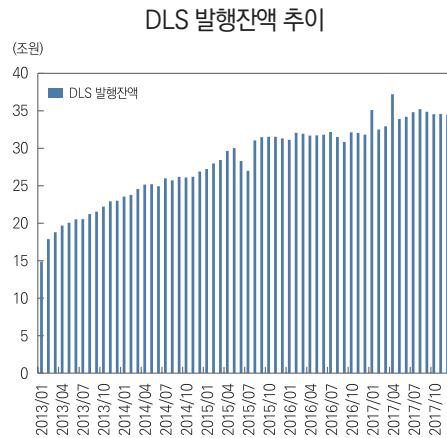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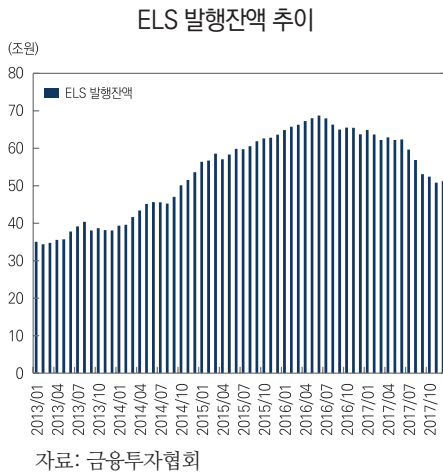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예탁결제원

DLS 발행 추이



□ ELS 발행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인한 조기상환이 늘어나면서 발행잔액은 전분기대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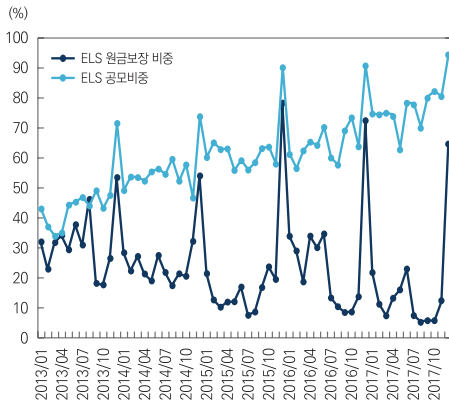
- 조기상환물량만큼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, 4/4분기에는 ELS의 발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LS의 발행잔액은 하향 안정세를 보임
- 2017년 4/4분기 기준 ELS·DLS 발행잔액은 각각 51조원, 35조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3.5%, 1.1% 감소



□ ELS와 DLS의 원금보장 비중이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지속으로 인한 고점우려 및 퇴직연금의 발행물량으로 증가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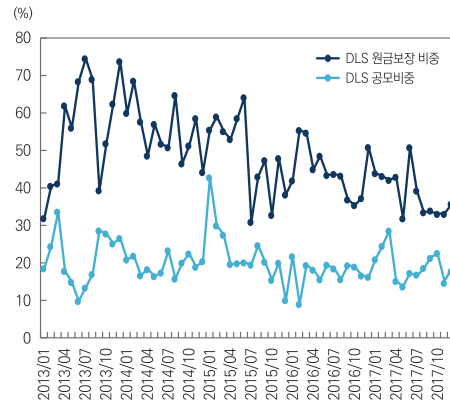
- 2017년 4/4분기 ELS의 원금보장 비중은 64%로 전분기대비 58%p 증가했으며, 공모 비중은 94%로 전분기대비 14%p 증가
- 2017년 4/4분기 DLS의 원금보장 비중은 36%로 전분기대비 2%p 증가했으며, 공모 비중은 18%로 전분기대비 4%p 감소

ELS 원금보장 및 공모 비중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DLS 원금보장 및 공모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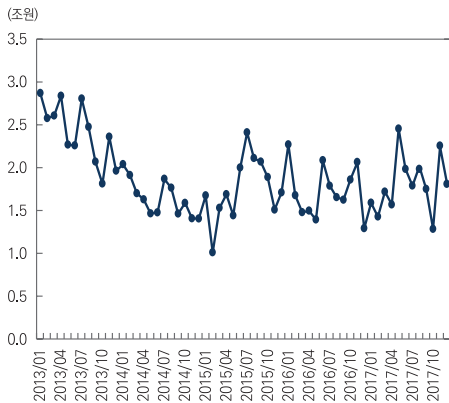


□ ELW의 거래대금은 기관의 거래는 증가하였으나 외국인과 개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감소

— 2017년 4/4분기 ELW의 거래대금은 5.3조원으로 전분기대비 4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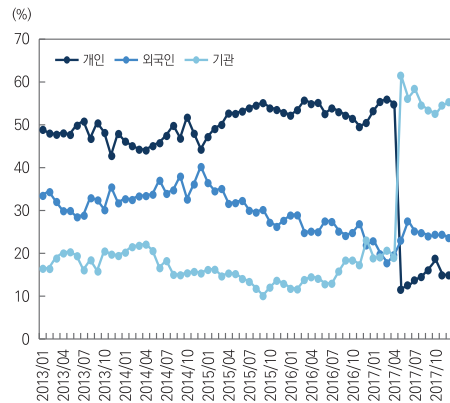
— ELW 시장에서 기관의 비중은 55.2%로 1.8%p 증가하였으나, 외국인과 개인의 비중은 23.4%, 12.9%로 전분기대비 각각 0.5%p, 1.4%p 감소

ELW 거래대금 추이



자료: 코스콤(CHECK)

ELW 거래대금 투자자 비중



선임연구위원 남길남 (02-3771-0687, namgn@kcmi.re.kr)

선임연구원 이종은 (02-3771-0689, celee@kcmi.re.kr)

파생상품시장 주요 이슈: KRX300 선물과 KOSDAQ150 옵션 상장

□ 2018년 1월 발표된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KOSDAQ시장의 통합 지수인 KRX300을 도입한 데 이어 3월 26일 KRX300 선물과 KOSDAQ150 옵션을 상장할 계획

— KRX30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우량종목 중 305종목(유가 237종목, KOSDAQ 68종목)에 대해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,000 포인트로 산출하는 시가총액 주가지수임

- KRX300 지수의 시장별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의 92.7%와 코스닥시장의 44.7%를 차지하고 있음
- 2017년 KRX300 지수의 수익률은 24.8%로 KOSPI200 지수의 23.2%와 KOSDAQ150의 49.6% 사이에 있음
- KRX300의 변동성은 9.83%로 KOSPI200의 10.08%와 KOSDAQ150의 17.72%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지수 구성의 특징상 KOSPI200 지수와 유사성이 높음

— KRX300 선물은 1계약 당 금액을 KOSPI200 선물의 7,900만원(316 포인트)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큼

— KOSDAQ150 옵션은 KOSDAQ150 선물과 KOSPI200 선물·옵션과 마찬가지로 거래승수가 동일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며 상장제도는 KOSPI200 옵션과 유사한 형태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

— KRX300 선물과 KOSDAQ150 옵션은 모두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상장되는 상품들로서 투자자의 활용도가 중요한 성공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

- 현재 KOSPI200 선물·옵션(미니 포함), KOSDAQ150 선물, 섹터지수선물, 개별주식선물·옵션에만 허용되어 있는 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에 KRX300 선물과 KOSDAQ150 옵션이 편입된다면 두 상품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임
- KOSDAQ150 옵션의 경우 KOSDAQ150 선물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